

# 무분별한 증·개축 멍드는 전통사찰

지난해 6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S(寺)는 진입로에 새로운 요사채를 짓고자 했다. 이 지역의 대표적 전통사찰인 S사는 당초 검침마에 대리석 주초석과 원통형 대들보 등의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겹쳐지는 출처마로, 대리석은 자연석으로, 원주는 각주로 각각 바뀌었다. 이미 들어선 전각과 요사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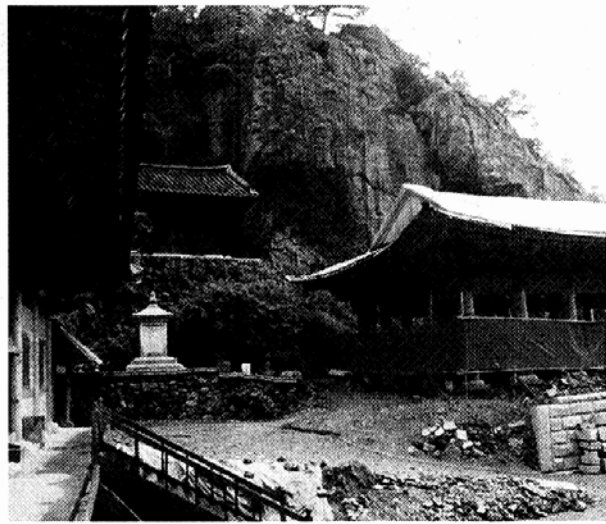
## 주변환경 조화무시 크고 화려하게

## 846곳중 100여곳만 원형 그대로

이다. 여기에는 △문화재를 쓰면서 보존하는 활용보존 △유물 형태로 보존하는 유물보존 △복원으로 나뉘는데, 이중 문화재 보존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활용보존'이다. 그 다음이 '유물보존'이며, 이도 불가능할 경우 비로소 복원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통사찰의 건축물인 경우, 완벽하게 과거를 재현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될 정도이다.

이처럼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특별한 가치'를 갖는 데에는 고미술 품으로서의 입체성과 역사유물로서의 현상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전통사찰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증·개축 공사는 이같은 방향과 동떨어져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 공사 역시 그렇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문화재 보호법·전통건축보존법 등 법적



△대구시 남구 대명동 비슬산에 위치한 전통사찰 안일사 대웅전 개축전경. 97년 시작된 공사는 견재재를 잘못 쓰는 등 부실시공으로 중단되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지만 전통사찰의 품모를 잃은지 오래다.

장치가 있지만, 대부분의 전통사찰에서는 재산권 행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마구잡이식' 증축분사를 하고 있어 전통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매장유물까지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98년 4월 성보보존위원회를 통해 전통사찰의 증·개축시 종단의 사전 심의를 권고했으나, 이 절차는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개월 동안 종단의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겨우 24건에 불과하며, 더욱이 이들 사찰 대부분 기초 공사를 시작한 상태라는 조계종 총무원의 설명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건 미술공예실장은 "국가 지정 고건축물이 있는 사찰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는 경우, 고건축 자체가 훼손될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에 대한 해당 사찰 주지

스님의 인식 부족이 건축물 하나 하나에 함축된 '질재미' '조형미'를 외면한 채 무조건 화려하고 장엄하게만 치장하려는 과욕으로 연결되어 졸속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재 논의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은 전통사찰 보존 방식 자체를 바꾸고 종단 내 '건축위원회' (가칭)를 신설하는 것이다. 즉 전통사찰 내 특정 건축물만 문화재로 지정해 그것만 유지보수하는 '부분 보존'으로부터 건물을 둘러싼 전체 공간을 유지보수하는 '전체 보존'으로 보존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공사의 범위, 방법, 범위 등을 세심히 검토하고 판단해 전통사찰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opia.com)

안무 - 백현순  
의상 - 이기향  
영상 - 육정학

# 의기투합

## 무용극 '비늘' 무대로

세 사람의 불자 예술가가 의기투합해 새로운 형태의 무용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11일 서울 대학로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무용제전에서 선보인 현대무용 '비늘'이 바로 그것. 백현순씨(창원시립무용단 상임 안무가)와 이기향교수(한성대 의상학부), 육정학교수(경북의국에테크노대 영상제작학부)가 함께 고민하고 제작한 이 작품은 척박한 불교무용계의 현실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무용 '비늘'은 업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본래 자기 안에 내재돼 있는 불성(佛性)을 되찾아 해탈한다는 주제를 춤과 의상 그리고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단순히 불교적 소재를 차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인간의 내면세계를 번외와 불성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총 3장으로 구성해 보여준다.

제1장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향해 꿈꾸는 정자의 이미지를 12명의 무용수가 표현한다. 그 앞에서 본래 부처인 주인공이 비늘같은 느낌의 의상을 뒤집어 쓰고, 내면의 모습을 관조하는 동작을 춤으로 나타낸다.

제2장에서는 탐진치 삼독에 물든 고통 가득한 인간의 삶을 검은색과 흰색, 강렬한 주홍색, 파스텔색조의 의상과 몸짓으로 표현해 내고, 업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드러낸다.



△11일 대학로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무용제전에서 선보인 현대무용 '비늘'

이윽고 깨달음에 다가가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울기미같은 번뇌를 하나둘씩 벗어내고, 환희하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제3장에서 섬세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비늘'을 안무하고, 공연에 직접 나선 백씨는 "업의 소산인 나라는 존재가 업 이전의 세계를 관조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해탈하는 과정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이기향 교수가 제작한 의상과 육정학교수의 영상을 통해 춤의 주제를 더욱 명확히 나타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무용에서 의상을 맡은 이기향은 업의 굴레를 종이고리를 일일이 맡아 연결한 독특한 형태로, 다양한 인간의 번뇌는 나뭇가지와 새 깃갈의 의상으로 구현했다. 무용가 백씨의 남편이기도 한 육정학은 떨어지는 물방울과 도심 한복판에서 꿈꾸는 물고기의 형상, 시냇물을 따라 흐르는 불상의 모습 등으로 내면의 갈등과정을 춤과의 절묘한 영상조화로 이뤄냈다. 또한 구름(口雲)과, 복장단, 목탁소리 등을 이용해 법쾌같은 느낌을 주는 배경 음악까지 한데 어울려 불교 현대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지난해 9월 연산회사의 극적인 이미지를 승화시킨 작품전 '영취산의 환희'를 통해 이미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이기향교수와 백현순씨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새로운 무대를 준비한다.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비늘'과 '영취산의 환희' 등 기존 공연물과 새로운 창작물을 통해 '반년만의 호흡'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경 대구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이기향은 "전통의 기반 위에 불교문화를 응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춤과 의상, 영상이 만나는 예술적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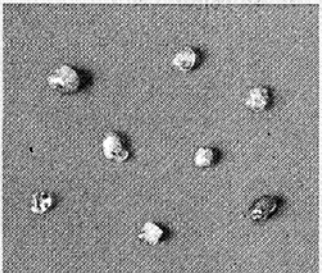
## 화엄사 동오층석탑 유물 공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진)는 7일 부처님 진신사리로 추정되는 사리 8과 등 구례 화엄사 동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유물 10여 점을 공개했다.

연구소는 "사리 8과는 지난해 10월 동오층탑을 해체하던 중 1층 탑신부에서 나온 것"이라며 "납성분이 많이 포함된 사리병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볼 때 고려시대 이전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엄사에서서는 이전에 서오층석탑 탑신부에서도 부처님 진신사리로 추정되는 사리가 나온 바 있다. 연구소는 이밖에도 "동오층탑에서 불상 뒤에 붙이는 금동광배와 불상좌대는 나왔으나 정작 불상은 발굴되지 않았다"며 "일제시대 등 후대에 탑의 내용이 도굴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높이 9.5cm, 폭 5.7cm의 금동광배는 가장자리를 화염문으로 장식하고 내부는 연화당초문을 배치하였다.

오종욱 기자



## 결식아동돕기 합창제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  
어린이합창단  
25일 안양문예회관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이 결식아동 돕기 합창제를 25일 오후 7시 안양문예회관에서 연다.

이번 합창제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끼니를 거르는 결식 아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같은 또래의 어린이 불자들이 평소 애용 음악적 기량을 통해 모금을 하고, 이를 결식아동을 위해 사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은 90년 창단 이후 동국대가 주최하는 '연꽃합창제' 등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지난해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운문스님 기념음악회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날 합창제에서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은 '내 마음의 주인' '안에서 찾자' 등의 선법가와 창작동요, 수화노래 등을 선보이며, 한마음선원 거사합창단과 청년부 합창단도 찬조출연한다. (0343)470-3100

## 불교인터넷TV '봄단장'

7개 채널 특화 볼거리 제공

불교인터넷TV(대표 임동민)가 13일 봄철을 맞아 계층별 기호에 따라 시사보도, 어린이, 강좌, 다큐 등 7개 채널로 분류해 특화하는 새 단장을 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동국대 연극영화과 대학원생들이 주축이 돼 선(禪), 사찰, 불교교리 등 불교를 소재로 제작하는 5분 안팎의 인터넷 드라마 '동상이몽'. 이 프로그램은 한 주제를 가지고 연속극 형식으로 만들어 네티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겠다는 의도로 기획했다. 또 'BIT 단편극장'을 신설해 국내외 우수 단편 영화를 2주마다 한 편씩 소개한다.

사이버 법당도 기존보다 한단계 발전시켜 사이버 주지 원광스님을 모시고 사이버 공간에서 완전한 신명 생활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찬불가 코너, 영상 설법, 사이버 축원 등을 신설해 포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강좌 채널도 다양한 볼거리가 풍성하다. 특히 원효스님의 사상과 행적을 소장학자 고영섭씨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 설명해 주는 '고영섭의 원효기행'과 동국대 최봉수교수가 초심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최봉수의 불교 입문'도 불자들의 신명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주희 기자

# 신시대(新時代) 신세대(新世代)를 위한 신행수첩!

# 진작에 이런 경전이 나왔어야 했다.

### 선물용(贈物用)으로 최적(最適)!

- 시스템 다이어리식으로 기획·제작되었다.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하다.
- 불자(佛子)들이 원하는 내용은 거의 망라되었다.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물에 젖지 않고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로 인쇄되었다.
  - YUPO지에 인쇄되었다.
- 가로쓰기에 내용이 미려하다.
  - 원색인쇄를 했다.



- 중요내용을 찾기가 아주 쉽다.
  - P.V.C. 인덱스를 다섯부분으로 배치하였다.
- 법당에서 독송하기 편하다.
- 신행생활(信行生活)에 유익한 공간이 기획되었다.
  - 신행생활(信行生活)과 성지참배기(聖地參拜記)를 요약기록할 수 있다.
- 내용을 재구성 하기가 편리하다.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물에 젖지도 않고 잘 찢어지지 않는 특수지에 원색인쇄로 미려하게 인쇄했다.

